연밭 풍경서 들려온 부처님 말씀

사진작가 이용하 개인전 '향결청정'
4월 29일~5월 16일 조계사 나무갤러리

양수리 연밭 촬영한 사진 20여 점 전시
〈숫타니파타〉 인연으로 연꽃 촬영 시작
사진에 〈금강경〉 등 사경작품 새겨넣어
"연밭 풍경에서 깨닫게 된 부처님말씀
더 많은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이용하 作, '극락정토' 250cm×112cm, 금강경-정재창 作

40여 년 동안 나무, 산, 새 등 자연을 소재로 사진을 찍어온 이용하(73) 사진작가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꽃(蓮)을 소재로 한 사진전 '향결청정(香潔淸淨)'을 연다.

이 작가는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여는 생애 첫 개인전에서 연밭의 4계를 담은 사진 30여 점을 선보인다. 연잎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연밭 사진 중에는 길이 2m가 넘는 대작들도 다수 있으며, 사진에 〈금강경〉, 〈반야심경〉 등 사경작품을 새겨 넣은 작품도 있어 불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강경〉을 새겨 넣은 작품은 한 장의 지면에 〈금강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작가는 연잎의 풍경을 찍으면서 처음부터 화면에 경전을 새겨 넣을 생각을 했다. 화면 속에 경전이 들어갈 공간을 미리 설정하고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에 경전을 새겨 넣은 것은 보기 드문 작업으로 거의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가는 "연밭을 찍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떠올랐고, 사진 속에서 부처님의 법향을 느끼고 싶어서 경전을 사진에 새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 새긴 사경 작품은 서예가 정재창 등의 작품들이다.

전시장에서는 연꽃의 4계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인 무상 · 고 · 무아의 삼법인과 인과의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향결청정'이란 '향기가 아름답고 고결하며 맑고 깨끗하다'는 연꽃의 네 가지 덕을 의미한다. 이 작가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이른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에 양수리를 찾았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대부분 양수리 주변에서 이른 아침에 촬영한 사진들이다. 원하는 색감과 분위기를 찍기 위해 한 장소에서 한 달 넘게 기다리기도 했으며, 화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모두 파노라마 화면으로 촬영했다. 여명에 비친 산과 강, 물안개, 물결과 연꽃 등이 노랑, 빨강, 보라, 파랑 등의 빛깔들과 함께 드러낸 신이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작가는 고요 속에서 풍경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시간과 시간을 촘촘하게 마주했다. 얼핏 보면 사진을 담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기다림을 스쳐지나간 시간들은 그 시시각각으로 모두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다린 시간들이 모여 사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으로 이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다. 이 작가는 자연을 주제로 사진을 찍다가 어느 순간 연꽃과 지중한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위 경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살아가라(처염상정 · 處染常淨)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적듯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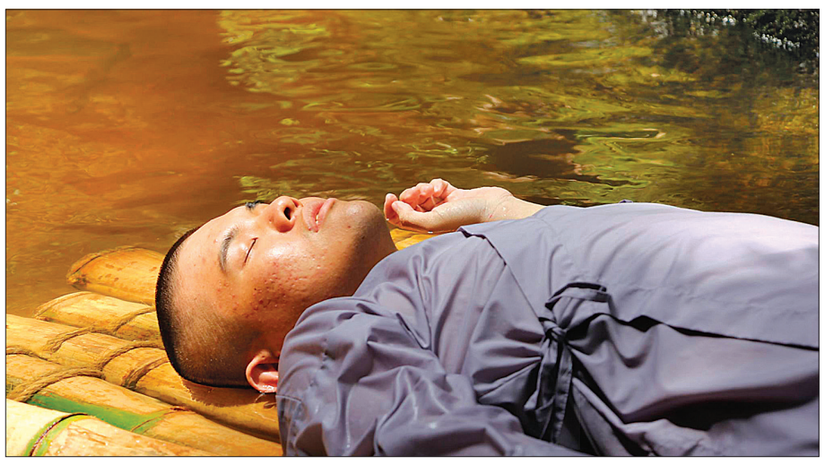
"연꽃의 삶을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며, 연꽃이야말로 아무런 대가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처님꽃임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연꽃이 들려주는 가르침을 오탁악세에 살더라도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꽃은 제게 봄기운 무르익을 때 기지개를 펴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러다가 가을이면 시들다가, 겨울이면 늙어 스러지는 생로병사의 모습을 통해 무상, 고, 무아의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여명을 머금은 양수리 연잎들이 빚어내는 신비한 광경들은 불가에서 말하는 궁극의 경지, 열반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 모를 환희심이 솟구쳤습니다."

이 작가는 새벽마다 연꽃을 지켜보면서 연꽃의 삶이 인생과 똑같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 이 작가는 연꽃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세계를 포착하며 포착해낸 무상, 무아, 회귀, 윤회 그리고 환희로움을 더 많은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회를 열었다. 이 작가는 이른 새벽 강가에서 기다린 풍경과 마주하며 스쳐지나가는 풍경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학종 작가는 추천의 글에서 "이용하 작가는 연밭이 있고, 산과 강이 있고, 그리하여 몽환처럼 물안개가 피어나는 곳 양수리에서 지난 2년여 간 새벽마다 수행자처럼 카메라를 들고 빛과 물과 안개와 그늘이 연과 어우러져 만들어낸 현묘한 앙상블을 담아냈다"며 "사진을 찍는 작가는 육안으로 부족하면 공간을 압축하고, 넘치면 시간을 쪼개는 내공으로 가물가물 자연이 빚어내는 조화의 궁극을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용하 작가는 2014년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예술의전당 한가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사진초대전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02)2011-1782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 특별기획


림 시옹 와이 감독(말레이시아)의 '마음의 호수(16분)' 스틸컷

4월 29일, 5월 1일 영화의 전당 중극장
구담스님의 '오월의 만다라' 등 6편 상영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불교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을 선보인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48개국의 단편영화 154편을 선보인다. 단편영화의 허브로 불리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아시아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쇼츠 섹션에서 그동안 아시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불교'를 주제로 한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특별 기획했다. 프로그램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다룬 6편의 작품을 4월 29일(오후 2시 30분)과 5월 1일(오후 12시) 부산 영화의 전당 중극장에서 연속 상영한다. 불교적 주제와 상징을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부터 수행자의 사회적 회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비구니가 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담아낸 자전적 이야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여러 장르의 불교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구담 스님 감독(한국)의 '오월의 만다라(25분)'를 비롯해 루루 감독(중국)의 '그릇(19분)', 멀빈 찬 감독(싱가포르)의 '무디타: 당신의 행복이 나의 기쁨(9분)', 림 시옹 와이 감독(말레이시아)의 '마음의 호수(16분)', 주현준 감독(한국)의 '윤회(5분)', 빌헬름 필히너 감독(티베트)의 '티베트사원의 축제와 기도(9분)'이다.

5월 1일에는 구담 스님, 림 시옹 와이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그담 스님의 '오월의 만다라'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 5.18의 이면을 담은 작품이다. 림 시옹 와이 감독의 '마음의 호수'는 나비에 마음이 팔려 기나긴 여정에 오르는 어린 승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bisf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